

動的 概念과 靜의 概念(제2회)

金基錫

顛落된 動的 思想

움직이지 않는 것이 存在하는것이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 움직이는 것을 나아 늦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으니 움직이는 것은 時間에 붙잡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時間을 넘어서서 時間조차도 나아 늦는 存在의 存在라고 한다. 그리 하여 움직이지 않는 存在인 存在의 存在만이

眞實한 存在이오. 움직이는 存在는「것」存在이오. 「속」存在가 아니니 끈혀짐이 없는 「속」存在의 꺼지고 사라지고 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무엇이 있다고 한다. 무엇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時間에 있어서 있다는 것이니 時間에 있어서 움직이면서 다른 것들과 열매여서 잇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時間에 있어서 다른 것들과 열매여서 잇음은 存在者가 自己를 存在者로 限定하는 自己限定이니, 이 自己限定을 벗어나서 그것은 잇어질 길이 없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存在하는것이라고 보는 것은 時間을 벗어나서 存在하는 超越的인 實在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存在하는 것이라고 보는 見解는 超越的인 實在를 내여서 우는데 있어서 存在의 認識에 대한 思辨的 構成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사람들은 存在에 대한 두 根源的인 理解의 사이에 잇으면서, 바른 理解를 가지고 그릇된 理解를 버렸나니

人間의 思惟가 여기서 한 개의 새로운 光明에 나아 갖다고 보아서 조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 存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現實主義 思潮가 오랜 동안을 전하여 내려오는 가장 빛나는 理解가 아니면 아니 된다. 이 理解는 現實主義思潮에서 나아졌고 現實主義 思潮는 이 理解와 함께 키어 져나니, 이 눈물겨운 理解는 現實主義 思潮의 귀여운 아들이면서 곁하여 그 사랑하는 어머니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現實主義는 이 귀여운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

노았는가. 오늘의 現實主義는 움직이는 것이 存在하는 것이라는 現實主義本來의 主張을 어떤 두 새로운 主張으로 번역해야 버렸다. 싸우는 것이 存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하나이요. 發展하는것이 存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싸우는 것이 存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進化論의 가르치는 見解이요.

發展 하는 것이 存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辨證法의 내여서 우는 主張인 것이다.

進化論이 움직이는 것이 存在하는 것이라는 存在者에 대한 基本理解를 哲學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것을 生物에 있어서 생각하여 본데서 進化論은 분명히 人間의 思想의 歷史에 어떤 빛을 가져 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움직이는 것을 단순한 싸우는 것으로 보고 싸우는 것을 生物의 領域에 있어서의 基本事實로 본데서 그것은 가져 오려던 빛과 아울러 있던 빛까지 빼앗어 가고 말았다. 進化論은 그 基礎를 『變의 思想』에 둔다고 말한다. 그러케 보는 한에서 그것은 벌써 오랜 옛날인 『헤라크레토스』에게서 시작 되었다고 보지 안하면 아니 된다. 내려와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 進化論은 분명히 어리운 體系를 이루었고, 그것이 『베이컨』에게 와서 새로운 方法을 배워가지고 『라마르크』를 거쳐 『따-윈』에게 이르러 비로소 세상에 알려 진 것이다. 『라마르크』는

生物 과 環境사이에 싸움이 있다고 보았고 『따-윈』은 生物과 生物사이에 싸움이 있다고 보았다. 오늘의 사람들은 生物사이에 있어 서도 같은 겨레의 個體와 個體사이에 있어서 가장 사나운 싸움이 잇고 또 잇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물고 뜯는 것이 生物自然의 『얼굴』이요. 누르고 짓발는 것이 人間本然의 『마당』이라고 가르친다. 사람들은 進化論이 『따-윈』에게 와서 일우어진 것 이라고 한다. 그러나 進化論은 『따-윈』에게서 얻은 것보다는 일흔 것이 만흐니 『라마르크』의 見解를 바로 받지 못하면서 모임보다 갈림을 크게 보았고 힘보다 싸움을 소중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따-윈』이 『라마르크』를 바로 傳承해야 우리들에게 보여 주지 못한 것을 우리들은 두고 이야기할 수는 잇다. 그러나 『따-윈』을 그릇친 오늘의 사람들에게 향하여

우리 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움직이는 것이 存在하는 것이라고 보는 存在者의 性格에 대한 基本認識이 오늘에 와서 이리도 顛落되는것을 우리들은 앉아서 보고 잇을 수는 없는 것이다.